



기아차 '텔루라이드', 美 SUV 왕좌

‘올해의 차’ 선정... 3관왕 달성

기아자동차가 한국자동차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기아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열린 '2020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텔루라이드(사진)가 스포츠유틸리티(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는 기아차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현대차 팔리세이드, 링컨 에비에이터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텔루라이드가 최종 선정됐다.

텔루라이드에 대해 북미 올해의 차 주최측은 "럭셔리 SUV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하는 신사양 및 성능을 겸비한 SUV"라고 평가하며

"기존 SUV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극찬했다.

이로써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와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트렌드의 '2020 올해의 SUV'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까지 북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동시에 석권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기아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스텔리아가 승용 부문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나 아쉽게도 혼다 어코드에 자리를 내어줬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 출시 후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6만대(5만8604대) 가까이 판매됐다.

/양성운 기자 ysw@

SK, AI 강의 등 사내 교육 플랫폼 출범

‘마이써니’로 미래역량 제고

SK그룹이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mySUNI)'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이써니는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성원 미래 역량을 키우고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한 결과다.

SK는 우선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T) ▲혁신 디자인 ▲행복 ▲사회적 가치 ▲리더십 등 8개 분야 450개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어서 반도체와 에너지 솔루션 등

분야로 확대를 계획했다.

강좌는 국내·외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와 연구기관, 컨설팅 기업 등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미래학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 카이스트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연구센터장 이한규 교수,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SK 관계사 CEO 등 임원들도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SK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간 근무시간의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강남에 고품격 청음 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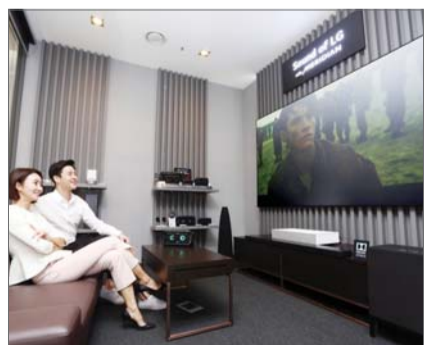
LG 사운드바·오브제 오디오 등 전시

LG전자가 프리미엄 오디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LG전자는 14일 서울 강남 LG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프리미엄 사운드 청음 공간을 열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수요가 많은 강남 본점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LG 프리미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다.

공간은 LG전자와 영국 오디오업체 메리디안과 협업해 조성됐다. 기술뿐 아니라 메리디안 사운드 철학도 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졌다. 양사는 사운드 튜닝과 신호처리, 음향 밀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했으며, 메리디안 음향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검증하



LG전자는 강남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프리미엄 청음 공간을 오픈했다. /LG전자

기도 했다.

전시 제품은 '오브제 오디오'와 'LG 사운드바', 'LG 엑스봄 고' 등이다. LG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도 함께 전시해 사운드 몰입감을 더했다. 100만원 상당 메리디안 고성능 스피커도 체험을 돕는다. /김재용 기자

美 세렌스와 손잡고 웹OS 오토에 음성인식 솔루션

LG전자, 車 인포테인먼트 강화

내비-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음성인식 적용하는 플랫폼 개발 협업을 커넥티드카 개발 속도

LG전자가 웹OS 오토에 음성인식 솔루션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렌스와 차량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과 세렌스 CEO 산자이다완 등 주요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웹OS 오토 기반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웹OS 오토는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다. 생태계를 개방해 시스템온칩(SoC)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여러 기업과 함께 구축 중이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왼쪽)과 세렌스 CEO 산자이다완.

/LG전자

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카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렌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업체 뉴앙스에서 자동차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차량용 음성인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개발을 이어왔으며, 3억대 이상 차량에 솔루션을 적용했다. 70여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인식 엔진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렌스 CEO 산자이다완은 "양사가

협업해 자동차 제조사나 티어1(Tier1, 자동차 제조사의 1차 공급업체)이 고객들에게 최첨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세렌스와 협업해 커넥티드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웹OS 오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동차 제조사나 고객에게 수준 높은 차량용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포드 몬데오

포드 '몬데오', 패밀리세단 입소문 타고 흥행

친환경 엔진으로 14.5km/L 복합연비 무릎 등 에어백 7개 탑재해 안전성 ↑

국내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한 중형 세단 몬데오도 가시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몬데오는 포드 대표 세단 모델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겸비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달성해왔다. 특히 새로운 몬데오는 안전 주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기능과 이전 세대 대비 향상된 주행 성능 및 연비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우선 몬데오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향상된 주행 성능과 연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몬데오는 고성능 2.0L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한층 더 파워풀해진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외의 조화로 다이내믹하면서도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특히 로터리 방식 자동 변속 방식으로 용이해진 기어조작과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 슈프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이전보다 개선된 14.5km/L의 효율적인 복합연비를 보여준다.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충돌에 약한 무릎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탑승하는 뒷좌석 안전벨트에는 팽창형 에어백이 마련돼 있어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충돌에 취약한 어린이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승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에어백 전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동승자 감지 에어백 시스템을 장착해 탑승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몬데오의 디자인은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은 포드 유럽의 디자인 DNA, '키네틱'을 적용해 개발했다.

전면부 디자인은 새롭게 변경된 상단의 부채형 전면 그릴과 안개등, 그리고 옛지 있는 포드 다이내믹 LED 헤드램프로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측면은 낮은 루프 라인과 한 줄의 슬더 라인을 통해 민첩함과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며, 후면은 포드 유럽 패밀리 룩 LED 테일 램프와 매끈하게 처리된 테일 파이프로 세련미를 가미했다.

또한 몬데오는 285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고 안락한 내부 공간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으로 운전자 취향에 맞게 내부 조명 컬러를 변경할 수 있다. 몬데오는 신규 색상인 블루 메탈릭, 디퓨즈드 실버, 어반 톨 등이 추가돼 총 11가지의 외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트렌드 모델 기준 42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